

UNKNOWN WORLD

과테말라 동부 가리푸나인 마을, 리빙스턴

Banished Beats

과테말라 동부 이사발 주 한가운데서 온두라스 만으로 흘러가는 리오둘세 강 어귀에 자리한 리빙스턴. 카리브 해와 아프리카가 만나 탄생한 가리푸나 문화가 깃든 어촌 마을이다.

On the eastern coast of Guatemala lies the colorful town of Livingston, a settlement with a strong cultural heritage and a distinctive Afro-Caribbean feel.



우리는 쪽빛 나무배를 타고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가로 향하고 있다. 한없이 푸른 하늘빛 카리브 해 위로 부드러운 잔물결이 꿈결 처럼 일렁인다. 드디어 우거진 숲에 둘러싸인 한적한 어촌 마을의 풍경이 눈앞으로 펼쳐진다. 과테말라 동쪽에 숨은 작은 마을, 리빙스턴이다. 비록 지금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리오둘세 강 어귀에 자리 잡은 리빙스턴은 한때 근처 푸에르토바리오스 항이 생기기 전까지 과테말라에서 카리브 해로 나가는 주요 항구였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와 카리브 원주민이 만나 탄생한 가리푸나인이 과테말라에 자리 잡은 곳 역시 이곳 리빙스턴이다.

가리푸나인의 뿌리는 카리브 해 세인트빈센트 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35년 신세계를 찾아 대서양을 향해하던 서아프리카의 한 노예선이 난파해 세인트빈센트 섬으로 떠밀려왔다. 가까스로 섬에 정착한 생존자들은 섬의 원주민인 카리브 인디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인종 간 결혼도 이루어졌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도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영국과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모두 섬을 떠날 것을 강요받았다.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가리푸나인은 과테말라를 비롯해 벨리즈,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

국가들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혼돈의 역사를 겪은 결과 가리푸나인은 토착 카리브 문화에 마야, 아프리카, 라틴계 문화가 혼합되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갖게 되었다.

굵게 땀은 레게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린 채 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키 크고 마른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를 지나쳐 낮은 언덕을 올라 마을 중심부로 다가가자, 독특한 아프로 캐리비언 리듬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태양이 내리쬐는 거리 양쪽



Our sky-blue wooden boat hums toward the palm-fringed coast, sending a wave of gentle ripples through the azure Caribbean waters. Ahead of us, surrounded by verdant jungle, is the laidback fishing village of Livingston. The town lies at the mouth of the Dulce River, and once served as Guatemala's main port on the Caribbean Sea. It is a unique settlement, home to Guatemala's Garífuna, descendants of African slaves and indigenous Carib.

The Garífuna trace their roots back to the Caribbean island of St Vincent. In 1635 a slave ship from West Africa that was traveling toward the New World was shipwrecked off the island. Its survivors settled here with Carib Indians, indigenous peoples from South America. Over time the two groups mixed and coexisted peacefully with the French colonialists, but were soon forced to flee when war broke out with the British. The Garífuna spread along the Atlantic coast of Central America in Guatemala, Belize, Nicaragua and Honduras. The syncretism of indigenous Caribbean, Mayan, African and Latin element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unique culture rich in its own traditions.

As I walk up the little hill toward the center of town, the distinctive sound of Afro-Caribbean beats becomes more and more pronounced. I take a stroll around the sun-drenched streets, lined with richly colored wooden buildings. Hand-painted signs hang precariously over the threshold of the wooden doors of shops and restaurants. Artists and artisans display ornamental wooden crafts and handmade musical instruments, along with woven baskets and little trinkets. An elderly lady exhibits an array of herbal remedies, which Garífuna practitioners use to heal the ill,

과테말라 동부 해안가의 가리푸나인 정착촌이자 작은 어촌 마을인 리빙스턴. 리오둘세 강과 온두라스 만에서 이뤄지는 어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왼쪽 아래, 왼쪽 페이지 위, 아래). 리오둘세 강 위를 떠가는 크루즈선. 리오둘세 강의 물줄기는 카리브 해의 온두라스 만으로 유유히 이어진다(아래).

The Garífuna people of the port town of Livingston, Guatemala, have a long tradition of fishing, which remains a central part of the community's economy (below left, opposite above and below). A sailing cruise on the Dulce River, which flows into the Gulf of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at Livingston (below).



in line with age-old spiritual traditions.

A street vendor lays out CDs of percussion-based music with West African roots, as his companion rhythmically beats on a large bongo that rests between his legs. They speak Garífuna, a creole dialect that belongs to the Arawak group of languages. Over the years it has assimilated words from both Carib and European tongues. It is a language rich in tales, which are normally recited during large gatherings. The texts are repositories of the history,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Garífuna, such as fishing and canoe building, and are often narrated to the accompaniment of dances and distinctive drumming.

Garífuna Day The best day to feel the heart and soul of this little town is on Garífuna Settlement Day (November 26) when men, women and children celebrate their roots through dances, parades, traditional dishes, religious celebrations and music, from ancient chants to popular rhythms, such as socca and samba. The

가리푸나인은 과거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으로 아프리카, 마야, 유럽의 요소가 복합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다(아래, 오른쪽 페이지 위). 해마다 11월 26일 가리푸나인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뿌리를 되짚어본다. 조상들이 과테말라에 첫발을 디딘 순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맨 아래, 오른쪽 페이지 아래).

The Garífuna are the descendants of African slaves, who developed a distinct culture with African, Mayan and European elements (below, opposite top). On Garífuna Settlement Day, November 26, the community dresses in traditional costumes for a ceremony that commemorates their arrival in Guatemala (bottom, opposite bottom).



으로 다양한 색채의 목조 건물이 늘어서 있다. 상점과 식당의 나무문 위에 직접 손으로 색칠한 간판이 삐걱거리며 걸려 있다. 이곳의 예술가와 장인들은 장식용 목공예품, 수제 악기, 손으로 짠 바구니, 자갈한 장신구 같은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에 따라 가리푸나 의사들이 병을 치유하는데 쓴다는 약초를 가지고 나온 할머니도 있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한 타악기 연주CD를 팔고 있는 좌판 주인의 옆에선 그의 친구가 다리 사이에 커다란 봉고를 끼고서 리드미컬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들은 아라와크어족에 속하는 크레올어 방언인 가리푸나어를 사용한다. 가리푸나어는 세월이 흐르면서 카리브어에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등 각종 유럽의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를 흡수해 생겨난 언어다. 온갖 언어가 얹히고 설킨 이 가리푸나어의 유래만 보아도 식민지와 이주로 얼룩진 이들의 복잡한 과거를 엿볼 수 있다.

가리푸나어는 이곳의 전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종종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낭송되곤 한다. 이야기 속에는 낚시, 카누 제작 등 가리푸나인의 역사, 관습, 전통이 담겨 있다. 이야기가 낭송되면 춤과 타악기 연주가 이어지고 구경꾼들까지 어우러져 즉석에서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가리푸나인의 날 이 작은 마을의 진면목을 느껴보고 싶다면 11월 26일, '가리푸나인의 날'에 방문할 것을 권한다. 이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 흥겨운 춤과 행진을 펼치고, 맛있는 전통 음식을 나누고, 종교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되짚어보며 하루를 보낸다. 음악도 '소카'와 '삼바' 등 대중적 음악부터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는 전통 음악까지 다양하게 연주된다. 축제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다. 전통 의상을 입은 가리푸나인 조상들이 바나나 잎과 야자수 잎을 흔들며 카누를 타고 과테말라 동쪽 해안에 도착하던 때를 재연하는 것이 첫 행사다. 뒤이어 골목을 따라 춤과 가장행렬 같은 행진이 이어지고 마을 전체는 흥겨운 음악으로 들썩인다.

가톨릭교와 아프리카 토착 종교의 결합은 '얀쿠누'와 '훈구후구'라 불리는 전통 춤사위에도 뚜렷이 드러난다. 빠르게 엉덩이를 돌리는 것으로 유명한 '푼타' 춤은 원래 장례식에서 사자(死者)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로 춘 것이다. 2001년 유네스코는 가리푸나인의 언어, 춤, 음악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나는 마을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해안으로 향했다. 긴 모래사장 위로 색색의 배 대여섯 척이 늘어서 있다. 어부 몇몇이 그물을 조심스레 펼쳐놓고 얹힌 그물에서 오늘 잡은 고기를 떼어내고 있었다. 가리푸나인은 주로 어업과 수렵을 기반으로 한 농업 경제를 유지해왔는데, 오늘날은 관광업이 이를 보조하고 있다. 생선 냄새를 맡은 외로운 백로 한 마리가 코코넛 야자수 숲에서 날아와 먹을거리를 찾아 다니고 있었다.

나는 유서 깊은 문화적 유산과 역동적인 색채, 강렬한 아프로 캐리비안 리듬이 혼합된 이 평온한 마을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들만의 개성 강한 문화, 시선을 사로잡는 눈부시게 화려한 색채,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강렬한 음악이 리빙스턴의 고요한 일상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 글 키키 디어 사진 엔리코 마르티노

© Enrico Martino / Lightmediation



ceremony begins early in the morning along the beach, when locals re-enact their ancestors' arrival on the eastern shores of Guatemala by approaching in canoes and traditional costumes, waving banana leaves and palm fronds. The town's little streets soon become the stage of dances and parades, with music engulfing the entire town.

The fusion of Catholicism and religions of African origin comes alive through traditional dances. The popular *punta*,

a dance that involves rapid gyrating hip movements, was originally practiced during funerals to help assist the spirit to pass to the afterlife. In 2001, UNESCO proclaimed the language, dance and music of the Garífuna a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 saunter away from the town toward the beach, a slender expanse of sand where half a dozen colorful boats have pulled up along the shore. Fishing nets are being laid out, as a handful of men remove the day's catch from the entangled threads. The Garífuna have largely maintained an economy based on fishing and hunting, which is supplemented by tourism today.

Attracted by the smell of fish, a lonesome white egret emerges from the coconut groves, foraging around in search of a snack. I watch the fishermen go about their daily routine as I contemplate life in this laidback settlement, a distinctive town with a strong cultural heritage, vibrant colors and pulsating Afro-Caribbean rhythms. 📖 By Kiki Deere Photographs by Enrico Martino



대한항공은 델러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Dallas daily.

●**찾아가는 길** 과테말라에서 리빙스턴으로 통하는 육로가 없는 탓에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과테말라시티에서 푸에르토바리오스행 직행버스를 타고 가서 모터보트에 탑승하면 리빙스턴까지 갈 수 있다. 모터보트는 하루에 여러 차례 운행한다. 벨리즈에서도 푼타고르다까지 가는 배편이 주 2회 있다. 과테말라시티로 취항하는 델러스발 델타항공 직항편도 있다.

●**추천 음식** 리빙스턴 가리푸나인의 식탁에 주로 오르는 식재료는 해산물이다. 코코넛밀크, 플랜테인(바나나 비슷한 열매), 카사바 나무뿌리, 허브를 넣어 만든 생선 해산물 수프 '타파도'가 대표적이다. 그 외 코코넛 빵, 콩이 들어간 쌀 요리가 있다. 현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도 많다. '부가마마'는 마야 문화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바다를 보면서 가리푸나인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내에 있는 '해피피시'에서는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추천 숙박지** 비야 카리베 호텔(www.villasdeguatemala.com)은 언덕에 위치해, 리오둘세 강을 굽어볼 수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포사다 엘 델핀 호텔(www.posadaeldelfin.com)은 널찍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목가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살바도르 가비오타 호텔(www.hotelsalvadorgaviota.com)을 추천한다. 나무 방갈로에서 묵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주변 여행지** 리빙스턴 근처 '플라야블랑카'는 '하얀색 해변'이라는 뜻이다. 고운 모래사장 위에 코코넛 아자수가 그늘을 드리우고 바닷물이 수정처럼 맑은 곳이다. 플라야블랑카로 가는 방법은 리빙스턴에서 출발하는 배편이 유일하다. 배를 타고 45분 정도 들어가면 해먹, 비치발리볼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흘러 내려오는 물이 여러 개의 작은 폭포와 함께 물웅덩이를 이룬 '로스 시에테 알타레스'는 리빙스턴에서 보트를 타거나 트레킹으로 갈 수 있다. 수영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GETTING THERE

Livingston can only be accessed by boat, as there is no road link from here to the rest of the country. From Guatemala City, there are direct buses to Puerto Barrios. Public motorboats run several times a day from here, and twice a week from Punta Gorda in Belize. Delta Air Lines flies direct from Dallas to Guatemala City.

●WHERE TO STAY

Hotel Villa Caribe (www.villasdeguatemala.com) has a beautiful hillside location and views over the Dulce River. The rooms set amid lush verdant grounds all have private balconies, and facilities include a large pool, a restaurant serving local and international dishes, and a poolside bar. On the waterfront is Posada El Delfin(www.posadaeldelfin.com), with spacious rooms and a honeymoon suite at the end of a pier with views over the Dulce River and the Atlantic Ocean.

●WHERE TO EAT

Given Livingston's proximity to the sea, the Garifuna rely heavily on fish as a food staple. The

town's signature dish is *tapado*, an exquisite fish and seafood soup made with coconut milk, plantains, manioc and herbs. Other traditional dishes include rice and beans and coconut bread. There are plenty of restaurants serving local cuisine. Buga Mama, which is owned and run by students of Mayan culture, has waterfront views and offers a range of Guatemalan, Garifuna and international dishes.

●**GETTING AROUND** The nearby Playa Blanca, or White Beach, is a wonderful stretch of powdery sand with shady coconut trees and crystal-clear waters. The beach is only accessible by boat, a 45-minute ride from Livingston. The small entrance fee allows visitors to use the facilities, which include hammocks and beach volleyball. A short boat ride or trek from Livingston is Los Siete Altares, a stunning collection of seven freshwater pools with graceful cascades that are perfect for a swim.

자세한 문외는 ☎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 **HANJIN TRAVEL**
www.kaltour.com



© Enrico Martino / Lightmediation